

# 쿠웨이트의 국가재건사업계획

쿠웨이트의 석유산업복구비용은 100억달러 이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. 부문별비용은 화재유정 진화에 40억달러, 피해 정유소 복구에 30억달러를 포함, 유전설비 및 터미널 재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화재유정수는 중립지대 Wafra유전의 100여개를 비롯, 총 520개(총 생산정수: 950개)에 이르고 있으며 이의 완전진화에는 5-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 이 중 세계 제2위인 거대 Burgan유전의 화재유정수는 150개에 이르고 있다. 이라크의 침공이전 Burgan유전의 산유량은 쿠웨이트전체 산유량(150만 b/d)중 2/3를 점하였었다.

유정화재에 따른 원유유출량은 4.5-5백만 b/d에 달하며 48억배럴의 매장량 유출이 추정된다('89 쿠웨이트의 확인매장량: 945억배럴). 한편, 정유소 피해규모는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복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. 수출용 3대정유소중 Mina al-Ahmadi 정유소(37만 b/d)의 정상가동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.

우선복구계획은 화재유정의 진화작업을 비롯, 국내공급용 정유소 복구가 1단계이며, 이어 본격적인 수출정유소의 재건사업이 2단계로 추진될 방침이다. 원유생산은 내수용 13만 b/d를 생산한 이후, 6개월내에 50만 b/d로 확대시킬 방침이다. 쿠웨이트(인구 220만)의 국내소비는 이라크의 침공이전 자동차 및 항공부문에서 3.5만 b/d를 비롯, 발전 등 산업부문에서 10만 b/d이었다. 현재 소비비축물량은 16일분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족분은 사우디로부터 수입하고 있다. 2단계 복구계획은 91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재건사업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한편, 장기적인 쿠웨이트 경제의 완전복구비용은 600-1,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자금마련은 해외산업 매각보다는 국제차관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. 차관규모는 주 수입원인 석유수출 수입규모에 의존될 것으로 보인다. 차관은 복구참여국의 정부가 보증하는 신용차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상환방법은 원유 및 정제제품으로 상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 차관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, 일부 해외자산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쿠웨이트의 해외자산규모는 1,000억달러에 이른다. 이미 다국적군에게 200억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자금마련을 위해 40-50억달러의 자산을 매각한 바 있다.

“쿠웨이트 긴급재건계획”(KERP: Kuwait Emergency and Recovery Programe)당국은 1단계 복구사업으로 해방부터 90일까지 기본서비스 조달에 치중할 방침인데 이에 대한 소요자금은 10억달러로 추정된다. 이미 8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중 미국계 기업이 70%를 점하고 있다. USACE(US Army Corps of Engineers)와 이미 45백만달러에 달하는 손실규모산정 및 기본서비스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미국 Bechtel社와도 원유생산 등에 관한 대 쿠웨이트 기술제공계약을 맺었다. Bechtel社는 해상유출원유 제거 프로젝트 추진뿐만 아니라 Burgan油田의 화재유정 진화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. 한편, Red Adair社는 쿠웨이트 화재유정 진압 협정을 맺었으며 1년계약에 따른 진화비용은 하루 4만~5만달러이다. ♣ <에너지경제연구원, 에너지 동향>